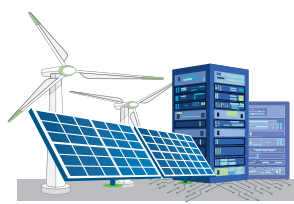


“풍부한 전력, 제때 공급할 전력망 갖춰야 경쟁력”



통합시대, 에너지가 경쟁력

〈7〉 종합 분석·전문가 인터뷰(끝)
김준영 전남연구원 기후AI에너지연구실 연구위원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품질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지역의 발전자원이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준영 전남연구원 기후AI에너지연구실 연구위원(공학박사)은 전남광주가 재생에너지를 발판으로 첨단산업을 키우려면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춘 전력망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발전량이 많아도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기업 유치의 강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력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와 소득이 지역에 남도록 하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남의 햇빛·바람과 광주의 연구개발·첨단제조 기반이 결합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반도체와 AI 산업에는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기회가, 발전사업에는 전기를 장기간 구매할 수요처가 생길 수 있어서다.

다만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 투자계획만으로 이러한 변화가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전력자금률이 높다는 것은 지역의 발전 기반을 보여주지만, 특정 공장에 필요한 전력이 때시간 확보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연간 전력량과 시간대별 공급능력, 전기를 보내는 선로의 여유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 발전소와 산업시설이 가까워도 선로·변전설비가 부족하면 연결이 어렵다. 지역 전체의 발전량을 내세우기에 앞서 기업이 들어설 장소에 가동 시점부터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한전과 지방정부, 투자기업이 후보지별 공급 여건을 함께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설비의 여유 용량과 이미 공급이 약속된 물량, 추가 시설 확보에 걸리는 기간을 검토하고, 기업도 시험가동과 생산 확대에 따른 수요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유치와 전력망 준비는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공급 가능 용량과 시점, 보강 비용과 책임을 관계기관이 확인한 계획으로 제시하고 투자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의 품질과 공급의 연속성도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반도체 공정과 AI 데이터센터는 순간적인 전압 변동이나 정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 경로와 비상전원, 고장 대응체계를 함께 검토하고, 전력·용수·부지 조성계획을 맞춰 공장이 준비된 뒤 기반시설을 기다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기업이 사용



김준영 연구위원

직무와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민 이익공유 역시 사업 초기부터 설계할 과제로 꼽았다. 발전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주민 소득이 늘지는 않는 만큼 참여 방식과 배분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운영비와 세금, 대출 원리금을 제외하고 설비 교체와 철거에 필요한 적립금까지 확보한 뒤 배당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높은 수익을 먼저 약속하면 실제 운영에서 기대와 결과의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여력이 작은 주민도 공동기금을 통해 돌봄·교통·공동급식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사용처 결정과 집행 내역 공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통합특별시가 에너지 전환의 성과를 실제 공급과 고용, 주민 생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약속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했는지, 지역 발전사업과 기업 사이에 지속적인 구매 관계가 형성됐는지, 지역인력 채용과 주민 소득이 늘었는지를 점검하라는 주문이다. 이를 토대로 준비된 사업부터 추진하고 전력망과 인력, 이익공유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의 햇빛과 바람이 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업의 구매와 투자가 발전사업의 안정성과 주민의 소득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러한 연결이 지속될 수 있다면 전남광주의 산업적 도약이 청년의 일자리와 마을의 미래를 함께 지탱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설비 유지관리와 전력기기, 냉각·정보서비스 분야에 지역기업이 참여하도록 기술 검증과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대학교육을 실제 채용

‘미식+예술’ 관광 스타트업 등 17곳 성장 지원

광주관광공사, 기업당 1000만원에 맞춤형교육·1대1 멘토링

광주 관광기업들이 남도미식과 공연을 결합한 야간 관광상품부터 지역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 문화예술 큐레이션 서비스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선보였다.

18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가 지역 관광기업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광주 관광 MICE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3월 참여기업을 모집해 4~9월 운영한 이번 사업은 기업별 성장단계에 맞춰 사업모델을 다듬고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전문교육과 1대1 멘토링을 제공했다. 투자설명회인 IR리그를 통해 벤처캐피탈과 연결하고 투자유치 기회도 마련했다.

광지주(아우르)는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코스요리에 지역 주류와 라이브 재즈공연을 결집한 야간

미식프로그램 ‘재즈다이너’를 선보였다. 베네베아간 관광상품부터 지역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 문화예술 큐레이션 서비스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선보였다.

어노딕(아트폴로 스테이)은 지역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용자의 취향과 시간, 예산, 동선에 맞는 공연과 전시, 문화공간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더좋은커피협동조합은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체험 키트 패키지를 제작하고, 광주 동명동에서 3개월 일정으로 팝업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초기 창업기업부터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까지 교육과 사업화, 투자 연계를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관광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가 지역 관광기업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광주 관광 MICE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달 마무리됐다.

광주특별시 중장년 정책 방향·과제 모색한다

26일 김대중센터서 ‘중장년정책 포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중장년 인구·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장년정책 포럼 2026’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포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광주사회서비스원빛고을50+센터가 주관한다. 중장년 정책의 동향과 다른 지자체 및 민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과 정책을 연결해 통합특별시의 중장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발제와 우수사례 공유, 토론 등으로 이뤄진다. 정책발제에서는 ‘중장년 정책은 왜 지금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인구변화와 일·삶의 전환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장년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장년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범위와 전달체계 등 새로운 행정체계에서의 달라질 중장년 정책을 조명한다.

우수사례 공유에서는 수원중장년센터가 ‘중장년 정책,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그동안의 중장년 지원 사례를 엮었고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민간영역에서 바라보는 중장년 가능성도 조명된다. 중장년의 경험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는 방법, 지방정부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현장의 관점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토론은 발제자, 사례발표자, 현장참석자들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중장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세척력이 우수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비닐하우스·차광페인트 제거제



고객센터 062.654.7896

010.7564.4706

이 메 일 tank10323@naver.com

홈페이지 www.kcsoap.com



광주공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일로 137-1

담양공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169

